신라 구법승 성지순례 숙소… 신라원 총 5곳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 최근 논문 통해 주장

그동안 학계에 3곳으로 알려져 있던 신라원이 총 5곳이며, 이들이 구법승의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였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오른쪽 사진〉는 최근 '신라사연구'에 투고한 〈8~9세기 재당 신라원의 분포와 성격〉 논문에서 "신라원은 당나라 정부가 늘어난 구법승을 관리하기 위한 우호적 배려로 설치한 숙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라원은 적산 법화원, 청주 용흥사, 장산 예천사 등 3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모두 일본 엔닌 스님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알려진 곳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중국 3개 기행문으로 꼽히는 것으로 엔닌 스님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 구법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변 교수는 순례행기에 나온 3곳 외에 오대산 동남쪽 입구의 청주 관음원과 획녹(지금의 녹천시) 본원사 등 2곳에도 신라원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청주 관음원 내 신라원이 있다는 문헌은 조주록에서 조주선사가 관음원에 머물때 신라스님으로 추정되는 신라원주가 공양을 청하며 신라원의 존재를 밝히는데서 드러난다"며 "조주 선사는 '나와 그대 사이에는 바다가 갈라놓고 있다'며 신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3곳에 관음원과 본원사 등 2곳 추가

관음원, 조주선사 〈조주록〉서 밝혀

본원사, 상산의 경당비문서 근거

이어 변 교수는 "획녹 본원사의 신라원은 〈상산정석지〉 권 13에 수록된 상산의 경당 비문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며 "본원사는 당 고찰로 승려의 비행(非行)을 바로잡는 승정이란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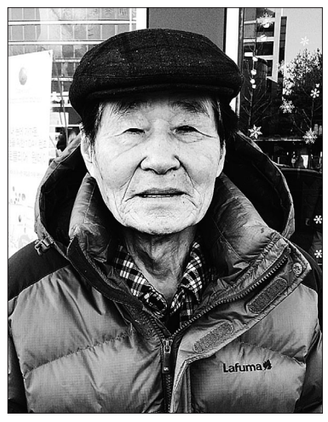
변 교수는 "엔닌 스님은 법화원과 법화원 내 신라원을 구분해 기술했지만, 후대에 이를 혼용해 사용했다"며 "엔닌 스님의 기록을 보면 신라원의 원주는 보통 본찰의 전좌승이 겸임했으며, 주 소임은 침구와 식사, 주방 등을 점검하는 등 대소사를 챙기는 것으로 신라원은 본찰 승사와 구별되는 객승을 위한 전용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교수는 신라원이 분포한 청주와 장산 지역에는 신라교민들의 집단거류지를 찾을 수 없기에 흔히 알고 있는 신라교민사회의 중심지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밝혔다.

변 교수는 "신라원은 불교명산 안에 자발적으로 들어선 신라암과 달리 길 위에 세워졌는데 이는 당나라가 30리마다 설치한 보통원과도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이어 "신라는 당나라에 유학승과 유학생, 조공사를 묶어 지속적으로 파견했으며, 이중 구법승들의 구법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역할도 일정부분 담당해 신라에 우호적인 당나라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으며 특별대우 차원에서 스님들의 전용숙소로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당나라가 신라 스님들의 편의를 위해 불교명산 길목에 설치한 신라원은 신라가 당나라에 문화를 수입하는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뜻한다"며 "이는 당의 역경사업에 신라스님이 참여해 거둔 성과와 같이 불교로 국경을 초월한 융합의 정신이 발현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변 교수는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도 이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며 "불교적으로도 구법승들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학계에서도 중화주의 사관을 벗어던지고 이에 대한 조명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탈리아의 고려불화, 한국 땅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14세기 고려불화의 국내 환수가 추진된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9일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4세기 전반의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를 구입 혹은 영구대여 형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미타불이 오른손을 내밀어 죽은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아미타내영도는 일본 지온(知恩)원과 젠린(禪林)사, 프랑스 기메 박물관 등 세계에 5점만이 남은 희귀한 성보문화재다.

국내에는 개인 소장본 1점 만이 있다.

2013년 이탈리아에서 확인된 아미타내영도는 최소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월관음도보다 현재 남아있는 수가 훨씬 적다.

한편, 이탈리아 로마의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은 1957년 개관해 2010년부터 한국실에서 불상과 그림, 도자기 등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청담 스님, 참선 수행에 정과혜 중시"

임병화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서 조명



임병화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오른쪽 사진〉은 최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청담 선사의 선사상 연구〉를 통해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었던 청담 스님을 재조명했다.

임 박사는 논문에서 "청담 스님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참선을 비판했다"며 "남악회양이 좌선에만 집착하는 마조를 깨우쳤듯 청담 스님은 참선에 있어 정과혜를 중시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이어 "스님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정혜쌍수를 적극 수용했으며, 이는 철저한 바른 생활을 바탕으로 선정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박사는 "청담 스님은 실질적인 선수행에 입각해 보살도의 경지를 구축해 근현대 출재가가 이루어지고, 승려와 신도, 선과 교를 융섭하는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러한 보살도 실천의 밑바탕은 인욕과 참회로 스님은 평생을 이를 통해 정진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청담 스님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계행과 선정, 교학 공부를 모두 중시하는 균형잡인 수행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들며 간화선에서도 선과 교를 아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이어 청담 스님의 마음과 관련된 독자적인 선사상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마음법문의 출가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마음사상 중 무심을 중시여겼음을 강조했다.

임 박사는 "청담 스님은 대중들도 마음공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부처와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으며, 마음자리를 찾는 실질적인 선수행으로 보살도의 경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스님이 이를 통해 이뤄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불교 대중화, 생활화"라며 "당시 어렵게 여겨진 선을 대중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런 연장선에서 대한불교초대발행인 등 사판의 영역까지 활발히 나섰다. 이에 대해 후학들이 청담 스님이 남긴 사상과 족적에 대해 활발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명대사 선종 총섭 임명 교지 첫 공개

불교사회연구소, 〈밀양 표충사〉에서 교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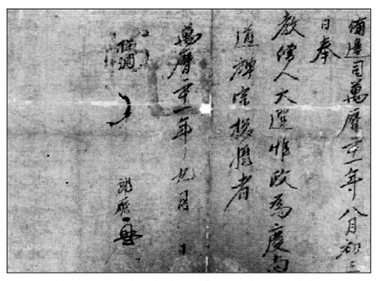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선종의 총섭에 사명당 유정 스님을 임명한다는 교첩이 최초로 공개됐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최근 호국불교사찰자료집 〈밀양 표충사(表忠寺) 표충사(表忠祠)〉를 펴내고 교첩 자료를 공개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자료집은 표충사의 건립 및 이건(이건논쟁 포함), 중창 사실을 알려주는 23종의 고문서 및 서적, 사명유정스님의 생애와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선조 26년(1593년) 8월 비변사가 왕명하에 발급한 교첩은 승과 합격 후 첫 법계인 대선(大選)인 유정 스님을 경상도 총섭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섭은 승병을 지휘하는 관직을 말한다. 이 문서에는 비변사 관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한 제조와 낭청이 직접 서명한 수결이 있어 공식문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표충사〉 내에는 18~19세기 승군대장인 팔도도총섭이 종정으로 인식됨을 엿볼 수 있는 〈종정안록〉도 함께 실렸다. 〈종정안록〉은 표충사가 봄과 가을에 올린 제향의 책임자를 담은 것으로 영조 14년(1738)부터 고종 10년(1873)까지 팔도도총섭을 맡은 136명의 종정 명단이 수록돼



비변사가 발급한 경상도 총섭 임명 교첩

있다.

이와 함께 〈표충사〉에는 표충사(表忠祠)의 창건과 이건, 사명당 유정 스님과 표충사 춘추제향, 표충사의 현재,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한 논문이 수록돼 있다. 표충사 설립 및 제향과 관련해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본관절목〉, 〈감영완문〉, 〈참사록〉 등이 그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와 함께 어공지(御供紙) 진상 사찰이었던 옥천사 소장 문서를 발굴 정리한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3(승잡역)〉도 함께 펴냈다. 옥천사는 조선시대 종이를 만드는 부역을 하며 관공서와 주고받은 고문서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자료집 3집으로 〈갑사 표충원〉 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성과 열반' 주제 학술세미나

한국교수불자聯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개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2월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불성과 열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차차석 동방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원효의 〈열반종요〉에 나타난 불성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김용환 충북대 교수의 〈열반경〉의 열반과 이토 신죠(伊藤眞乘) 불성사상의 상관연동 연구,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의 〈열반경〉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정치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희재 광주대 교수가 한국의 열반종에 관한 연구, △김성규 영남대 교수가 영원에 대한 고찰- '열반경', △윤종각 동아대 교수가 '열반경' 계통의 경전에 나타난 공과 실재,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가 한국에서 진여원의 사상과 수행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미술사硏, 제45회 미술사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2일부터 6월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제45회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화조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화조화의 세계,△ 고구려 고분벽화의 화조화, △고려불화 속의 화조화, △조선 전반기 불화 속의 화조화, △신사임당 초충도와 그 주변, 조선 전반기의 꽃과 동물그림, △조선 후반기 불화 속의 화조화, △조선 후반기 민화 속의 화조화, △화조화 탐방, △17·18세기 조선 후반기의 화조화, △19세기 조선 후반기의 화조화 등 13개 강연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뭇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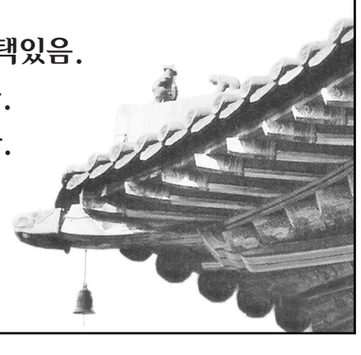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 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 봉 합 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